



2014년 4월 30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최성준 과장(503-7949), 이명수 연구관(509-7294)

운전 중 DMB 시청 원천 차단

-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내비게이션 제품 가이드라인 KS 제정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성시현, 이하 국표원)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의 DMB(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) 화면이 자동으로 차단 되도록 하는 “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”에 대한 KS 표준을 4월 30일자로 제정하였다고 밝혔다.
- 현재 자동차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(전체 내비게이션의 12.5 %)은 운전 중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이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, 출고 후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 기능이 없는 상태다.
 -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에 운전 중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을 탑재해 오고 있다.
-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에는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 외에도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서 찾을 때 7.5 초 이내에 인지(1 회 주시시간을 1.5 초 이내, 총 5 회 이내에 목적 정보 인지) 할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다. 또한 운전자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안내, 후방 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동화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.

- 국토원은 이번 KS 표준이 강제성 없는 권고형태의 가이드라인 표준이라며,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줄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표준을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.
- 한편,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2014년 2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6만 원, 버스 등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고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(☎ 02-509-72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